

해남군, 업체당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전남 최초 소상공인·기업 5600여 곳에...전액 군비 투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검토 착수 민생안정 도모

해남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기업체 등에 '해남형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은 전남 최초다.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한 경영안정자금은 100%를 군비를 투입해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해남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체 5600여곳이며, 재난관리기금 56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권장하는 한편 임대료 등 급박한 용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 50%와 현금 50%를 혼합해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남형 소상공인 지원패키지'를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특별보증과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에서 최저 0.4% 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에는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월 최대 3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며, 택시업체 종사자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포함해 모든 군민에게 4~5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학습지 방문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종사 근로자 및 프리랜서가 무급휴직 또는 일을 못하는 경우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한다. 해남군은 지난 6일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할 비상경제대책TF단을 구성했다. TF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시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해남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해남군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시책 외에도 전체 군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하수관로 15.1km 신설 120억 투입 신안·송정마을 일원

해남군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해남군은 2024년까지 국비 등 120억원을 투입해 해남읍 신안·고도·안동·송용·송정 마을 일원에 오수관로 15.1km를 신설한다. 일부 생산농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남·고도지구와 상업·주거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관동마을 일원까지 해남읍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된다. 해남군은 현재 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병행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꾸준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해 군민 모두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모든 축제 기획·운영까지 '천혜의 섬' 보길도 상징 글귀 보내주세요

완도군 축제 군민기획단 모집 완도군, 16일까지 공모...당선작 보길대교 입구 조형물로 제작

완도군이 각종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완도군 축제 군민기획단'을 모집한다. 행정 주도의 축제를 벗어나 '완도를 design(디자인) 하다!'란 슬로건으로 기획부터 운영까지 군민이 직접 완도다운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군민 주도형 축제 운영이 목적이다. 군민기획단은 청소년 분과(드림팀)를 포함해 4개 분과(총 15명 이내)로 운영한다. 축제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 군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행사 운영,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기획·행사 운영 등을 논의한다. 운영 과정은 매월 2회 분과별 자체 회의를 통해 마련한다. 축제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기획단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로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송현 완도군 관광과장은 "축제의 진정한 변화는 군민 참여로 시작된다"며 "기획단과 함께 완도다운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고산 윤선도 선생이 조성한 완도 보길도 세연정 원림.

완도군은 고산 윤선도 유적지로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보길도의 상징 글귀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간 2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완도의 대표 관광지 보길도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구는 '간강의 섬 완도', '솔로시티 청산도', '가고 싶은 섬 소안도'처럼 10자 이내다. 접수된 문구는 보길면민과 이장단, 변영회, 보길면사무소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대상 1명, 우수 1명, 장려 1명을 선발한다. 선정 문구는 4월중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최종 당선작은 글자 조형물 형태로 보길대교 입구에 설치된다.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 선생이 직접 조성한 조선시대 대표적 별서정원인 부용동정원이 있다. 또 예송리해수욕장, 보옥리 공룡알해변, 노을이 아름다운 망골전망대, 뽕죽산이라 불리는 '보죽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다. 김현란 보길면장은 "조형물을 보면 보길도가 어떤 곳인지 떠오르고, 인상적이고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문구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청정진도' 사회적 거리두기 11~12일 낚시어선 조업 금지

오는 11~12일 주말 진도 낚시어선의 조업이 전면 금지된다. 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낚시어선 조업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통제 대상은 진도군에 등록된 47척의 낚시어선으로, 11일과 12일 주말·휴일에 낚시어선 조업을 위한 입·출항이 전면 통제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진도를 지키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완도사랑상품권 판매 100억 돌파 발행 8개월만에...구매 한도도 상향



완도군은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 판매액이 발행 8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완도군은 지난해 하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을 선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올해 2월부터는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개인은 월 80만 원, 법인은 만기 8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판매액이 급증했다. 올해 3월 한 달간 상품권 판매액만 20억 원을 돌파했으며, 환전율은 97%에 육박했다. 환전율은 월 판매액 대비 환전되는 금액의 비율로 상품권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의미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사랑 상품권 판매·사용이 일상 속에 자리 잡기까지 군민들의 구매 노력과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가입이 큰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10년 내다 본 완도군 '2030종합발전계획' 만든다

군민 삶의 질 향상·도시 경쟁력 강화 해양치유 관광거점도시 건설 등 미래 100년 위한 밑그림 그려

완도군이 10년을 내다보는 '2030 완도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2030 완도군 종합발전 계획'은 완도군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 개발과 우리나라 최고 해양치유관광거점도시 건설 등이 담겼다. 완도군은 지난 2009년 '완도 비전 2020 계획' 수립 이후 정부 정책과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완도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이후 완도 미래상 제시와 더불어 민선 7기 군정 비전을 바탕으로 완도군의 발전 잠재력 조사·분석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발전 계획을 구상 중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의 안정된 소득 보장 ▲선진국형 사회복지 구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등 분야별 구체적인 발전 지표 설정과 균형 발전 방향 제시한다.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100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설문조사를 통한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전남도 등 상위 기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갖춰 미래 지향적인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 기관·사회단체·전문가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완도군과 유사한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완도군만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신수철 완도군수는 "2030 완도군 종합발전계획이 미래 완도 100년을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완도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군민들과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